

개혁신앙 칼럼 (Reformed Essay)

송영목 | 자살과 그리스도인

편집부 |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현대인과 개혁신앙 ①

요즘 해 아래
에서 일어나는 헛
된 일들을 보면
'절망'이 시대정
신으로 서서히 자
리 잡아 가고 있

자살과 그리스도인

는 것처럼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무려 24.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으로 이는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 서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록,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남성의 가사분담과 전통적인 남성 권위의 상실 및 경제적 경쟁의 증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학자들은 자살의 원인을 크게 '사회 심리적 요인'과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해 왔다. 사회심리적인 요인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살을 이해하는데, 산업화 이후 도시에 몰려 든 사람들 가운데 자살률이 현격히 높아졌는데,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소속감 상실, 가치관의 혼란, 규범적 강제가 사라져 감에 따라 자기를 지탱시켜줄 기준이 없는 상태 등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켰고 이는 곧 자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개인 심리적 요인에 의하면,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보호가 결여된 가정의 청소년들은 애정 결핍을 보상 받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충동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어른의 경우 도피형 자살(예. 외로움에서 도피), 비밀을 지키려는 자살(예. 업무상의 비밀), 항의형 자살(예. 데모중의 분신), 무엇보다 절

망감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으로만 자살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앙관 혹은 세계관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면 함부로 자살할 수 없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고통을 벗어나는 방도로 자살을 선택하기 쉽다. 한국처럼 인성교육이 실종된 채, 지나친 경쟁구조 속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혹은 스테그플레션을 장기적으로 겪는다면 자살 경향이 심화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현대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원론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사회-경제적 분석 및 통계 혹은 인간의 심리 분석에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 성경 안에서 인간 윤리를 찾아야 한다.

성도의 구원은 통전적이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영역과 관련 있다.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크리스챤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 심지어 목회자가 자살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혹은 믿음이 없어서일까?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로 단정 짓을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살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교회가 자살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거부했다. 과연 이것은 성경적인가? 만약 평소에 복음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일순간 잘못 생각해서 자살했고 회개할 기회 없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원이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 질환’에 의한 자살과 ‘인간의 연약성’에 의한 자살을 구별해야 무분별한 감성적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

시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살한 자라도 그가 주님을 참으로 믿은 자이며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하시고 간섭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을까? 주님의 용서는 인간의 어떤 죄악보다 크지 않은가? 사무엘하 1장에 의하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한 사울 왕을 하나님의 용사로 칭송하며 기리고 있다. 만일 우리가 사울이 자살했기에 지옥갔다고 단정짓는다면, 다윗의 이 노래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 간 자를 하나님의 용사로 보면서 그리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살자가 생겼을 때도 목회 차원에서 장례해 주고, 유족을 위로하여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교회에서 단순하게 “자살하면 지옥간다”라고 가르치면 자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듯하다. 이 말을 “자살해도 구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니 괜찮겠구나”라는 의미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은 성경적으로 옳거나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주님의 주되심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성도는 자기 생명의 청지기이자 주인이 아니다. 따라서 자살은 비신앙적 행위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어긴 중대한 범죄다(참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68-69문).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복종해야 할 사람 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고 싶은 순간에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고전 10:13).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무의미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다(롬 8:28). 자살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이 겪게될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자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힘들기에, 서로 짐

을 나누어야 한다. 이해와 동정으로 열린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지막 대적인 사망이 승리의 부활 생명에게 삼킨바 됨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전 15:54; 살전 5:16-18).

에스겔 16:6에 의하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전쟁터와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제안해 본다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우울해 하며 외로워하는 자, 특히 성도 가운데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 할 사람을 훈련하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확인하자: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 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 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 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 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 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전 15:55, 57. 바른 성경 역).

한자성어와 함께 고찰하는 개혁주의 핵심교리 1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마 7:26) 이는 ‘사상누각(沙

上樓閣)’이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정반대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무엇일까? ‘근고지영(根固枝榮)’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그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또한 시편에 나타난 다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든다: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시 92:12-14).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즉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앞에 주어진 상황을 살펴 보면 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21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